패션산업 실무자 양성에 관한 연구
-국내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섬유패션디자인전공
교수 이영재

Ⅰ. 서론

1.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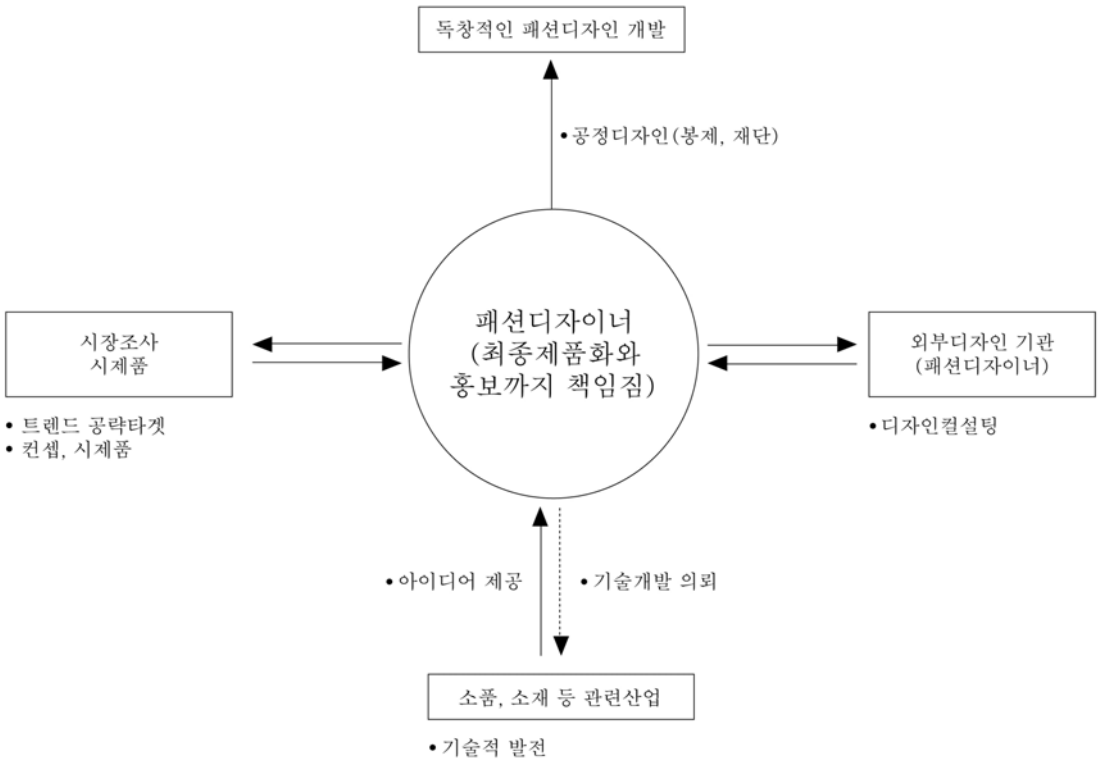
한국의 패션산업은 1990년대 이후 과거 노동의존형이었던 산업형태의 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며 가격에 의한 비교우위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패션제품은 디자인의 독창성이나 다양성이 부족하고 브랜드 이미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 기업들이 그동안 OEM이나 외국상품 모방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을 통한 자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등한히 해온 것이 원인 중 하나이다. 즉,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지 않은 결과 해외시장에서 중국 등과 유사한 중·저급 정도의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1].

이태리, 일본, 미국 등 패션선진국들의 패션의류 및 제품은 패션디자이너를 통해 소비자 수요까지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는 마케팅 기획력, 기능성 소재, 색상 창출력, 부자재까지 관련 산업의 기술 축적이 되어 있기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한국 제품의 패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독창적인 패션디자인 제품의 개발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의 관련기술과의 연계성을 높여나가는 종합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표 1>).

패션산업의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전문인력의 양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전문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대학들의 교육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현 시점에서 한국 패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패션실무자 양성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대학교육이 한국 패션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 섬유패션미래전략기획단, 「섬유·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3, pp.385-386.

<표 1> 패션디자인 창출을 위한 종합시스템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국내 패션 인력의 교육기관은 전문대학을 포함함 4년제 대학교에 116여개의 학과가 있으며 40여개의 패션전문학원에서 매년 6,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표 2>를 보면 패션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은 각 각 2만명과 1만 6,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2001년 국내패션 교육기관 학생 수[2)]

구 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전문학원	계
기관수(개)	70	46	40	156
재학생(명)	9,267	4,972	5,000	19,239
졸업생(명)	3,089	6,738	6,000	15,827

본 연구에서는 도규희(1994)[3)]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방법과 범위를 정하

2) 섬유패션미래전략기획단, Ibid,, 2003.
3) 도규희·최경순·이정옥·조차, "복식산업발전을 위한 패션 전문교육에 관한 연구", 服食23號, 1994, pp.225-248

였다. 전국 4년제 대학교 49개교의 52학과를 대상으로 단과대명, 학과명, 전공영역별 분류에 따른 학점비율을 1994년과 2008년 것을 비교 분석 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한국 패션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교육의 내용이 변화되었는지 조사 하였다. 도규희(1994)의 연구 결과로 도출된 산업체 설문조사 결과가 변화된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는가 검토하여 패션실무자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문제점

1.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출증가세 둔화

국내 섬유류 수출은 중·저가 섬유 및 제품에서 저임금 수출국과 경쟁 속에서 과다한 국내업체끼리의 수출경쟁으로 1995년 이후 수출단가가 하락되고 2001년 이후 섬유수출 증가율이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주력상품이었던 화섬직물 수출액이 감소되면서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2.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비중 저조

선진국의 산업용 섬유 생산비중이 60-70%에 비해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해 그 생산기반이 취약하며, 이는 의료, 전기, 건축, 전자, 항공 농업, 해양 등 각 분야별로 요구되는 차별화된 기능성 산업용 소재의 기술 개발력이 약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3. 핵심기술, 디자인 수준의 저조

<표 3>을 보면 분야별 핵심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0년 내외의 짧은 역사와 취약한 기반을 지니 국내 패션디자인산업은 선진국의 제품모방형 디자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표준화, 패션정보의 상용화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미비하다.

<표 3> 분야별 핵심기술 내역별 수준 비교

	선진국	한국
화섬	- 새로운 방사 및 신합섬기술 보유 STU, SHS, H4S, HCS의 제조 방식과 나노섬유 등의 신합성 섬유제조기술	- 국내 연구단계 또는 미보유 설비제작, 신공법관련 기술부족과 투자 경제성 확신 불안
방직	- QR 차별화 생산기술 정착 정보, 자동화의 조합	-대량생산시스템과 QR 차별화 기술과의 상충문제 미해소
제직 편직	-고속화 기계제조와 다기능직물 생산력과의 연계강화	-국산기계 제작능력 기반 취약 수입기계 의존도 가속화
염색 가공	-소량다품종 패션제품 생산시스템 완비 다기능 설비제작력, up-down협력체제	- 특수소재, 기능성소재, 차별화소재 전문기술 부족 임가공 수주시스템에 따른 개발력 미비
패션 봉제	-세계적인 패션창출력, 기획력보유 전시와 수주의 효율적 연계, 세계 패션의 리드	- 패션창출 기반 취약 내수시장 중심의 패션 마인드로 제3시장 경쟁력 취약

4. 국내 생산 여건의 악화

1990년대 들어 수출단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평균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내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었다. 고용 인력도 감소되어 인력부족에 따른 해외연수인력이 유입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해외투자가 적극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공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5. 수출 주력품목의 성장 둔화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은 1960년대 면사와 아크릴 등의 최저가 제품에서 2000년대 고기능성 합섬직물과 고품질 의류로 고급화되어 왔으나 수출방식에서 OEM을 벗어나지 못해 국제하도급 생산국이라는 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Ⅲ. 전국대학교의 교육내용 현황

1. 단과대학과 학과목

1994년과 2008년 사이에 대학교육 내용 변화의 흐름을 읽기 위해 학과 명칭과 소속 단과대 명칭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학과 명칭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1994년 한 곳도 없던 패션디자인 학과가 2004년 9개로 신설된 것이다. 의상학과란 명

칭이 8곳에서 3곳으로 줄어들고 의상디자인학과가 6곳에서 8곳으로 늘어 디자인에 역점을 둔 교육 내용으로 방향이 변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의생활학과가 4곳에서 모두 없어진 것은 과거 가정대의 의•식•주 의 분할 전공 개념을 탈피하고 보다 더 전문적인 형태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텍스타일디자인 학과로 전공이 나뉘어 신설되기도 하고 의류패션산업학과,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 패션뷰티학과 등 산업체와 연결된 교육, 전문화•세분화 된 교육을 추구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전국대학(교) 학과 명 분석

학과명	1994년	2008년
의류(직물,환경)학과	28	23
의상학과	8	3
패션디자인과	-	9
의상디자인과	6	8
의생활학과	4	-
텍스타일디자인학과	-	2
의류패션산업전공	-	2
섬유미술학과	-	2
패션뷰티학과	-	1
섬유패션학과	-	1
패션마케팅학과	-	1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	-	1
계	46	53

<표 5> 전국대학(교) 단과대 명칭 분석

단과대명	1994년	2008년
가정(생활,과학,환경)대학	27	21
예술(조형,미술)대학	4	8
이과(계열)대학	7	3
디자인대학	-	6
자연과학대학	4	4
산업대학	2	-
예체능계열	1	-
섬유패션학부 패션대학	-	2
문화관광(사회)대학	-	3
공학대학	-	1
응용산업대학	-	1
계	45	49

소속 단과대학명칭의 주된 변화도 예술(조형, 미술)대학이 4곳에서 8곳으로 늘고 디자인대학이 새로이 6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대학이 패션산업 분야 중 디자인 교육의 필요성을 중요시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대학 성격의 문화관광대학 내에서 3곳이나 신설되었고 이과대학 소속이 7곳에서 3곳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표 4>과 <표 5>에서 학과명과 단과대명이 1994년도에 비해 2008년에 증가 한 것은 동일대학교 안에서 소속 단과대와 학과가 세분화되었기 때문이다.

<표 6>는 전국대학교 패션관련 단과대학 및 학과명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6> 전국대학교 패션관련 단과대 및 학과명

소재지	대학교명	단과대명		학과명	
		1994년	2008년	1994년	2008년
서울	서울	가정대학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의류학과
	숙명여자				
	한양				
	중앙				
	성신여자			의류직물학과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의류학과
	이화		예술대학		
	경희		예술, 디자인대학	의상학과	의류디자인과
	연세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의류환경학과
	성균관			의생활학과	의상학전공
	건국		예술문화대학 디자인학부	의상학과	의상디자인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
	서울여자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의류학과
	동덕여자		디자인대학		의상디자인학과
	한성	이과계열	예술대학 의생활학부	의류직물학과	패션디자인전공, 의류패션산업전공
	상명	산업대학	자연과학대학	의상디자인과	의상디자인과
	덕성여자	예술학부	예술대학	의상학과	의상학과
	국민	조형대학	조형대학	의상디자인과	의상디자인과

경기	수원	가정대학	생활과학대학	의류직물학과	의류학과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학과
	가톨릭		생활과학학부		의류학전공
	경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의상학과
			미술. 디자인대학		섬유미술학과

경북	대구	가정대학	조형예술대학	의류학과	패션디자인. 비즈니스학과
	안동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영남		섬유패션학부		
	경북		이공대학	의상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
경남	창원	이과계열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의류학과

전북	전북	생활과학대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의류학과
	원광	가정대		의상학과	패션디자인산업전공
	전주우석	이과계열	문화사회대학		패션뷰티학과
전남	목포	생활과학대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의류학과	생활과학학부 의류학과
	동신	이과계열	문화관광대학		의상디자인학과

대전	대전	이과계열	응용산업대학	의류학과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배재		관광문화대학		의류패션학과
	한남		이과대학		의류학과

충북	청주	예술대	디자인학부	의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전공
충남	충남	가정대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의류학과
	상명	산업대	디자인대학	의상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전공

부산	동의	가정대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부산				의류학과
	동아	생활과학대			
	경성	자연과학대	이과대		의상학과

광주	전남	가정대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의류학과
	호남	예체능계열	예술대학	의상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인천	인하	가정대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의류디자인학전공
	인천	자연과학대	자연과학대학	의생활학과	패션산업학과

대구	경북	생활과학대	생활과학대학	의생활학과	의류학과
	계명	가정대	패션대학		패션디자인학과 패션마케팅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
	경일	조형학부	공학대학	의상디자인학과	섬유패션학과
			디자인대학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곳은 대구지역 대학교들로 계명대학교는 패션대학의 패션디자인학과, 패션마케팅학과, 텍스타일디자인 학과를 아우르는 단일 단과대학으로 그 규모를 확대시켰다. 대구지역은 섬유 관련산업체와 생산 공장이 밀집한 곳으로 정부가 주도한 ‘밀라노프로젝트’가 시행되기도 했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다.

전공영역 중 패션디자인관련분야의 비중이 전체 100%중 30%가 넘는 대학이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성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경원대학교, 대전대학교, 청주대학교, 대구대학교, 계명대학교, 경일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로 조사한 32개 대학 중 15개교이다. 이는 1994년도 동일한 조사에서 경희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남대학교, 청주대학교의 6개교였으며 1994년 18.7%에서 2008년 46.8%로 증가하였다. 이 중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는 패션디자인과 복식사회학 관련과목이 늘어난 반면 피복과학 관련분야가 줄어들었다.

2. 전공영역별 교과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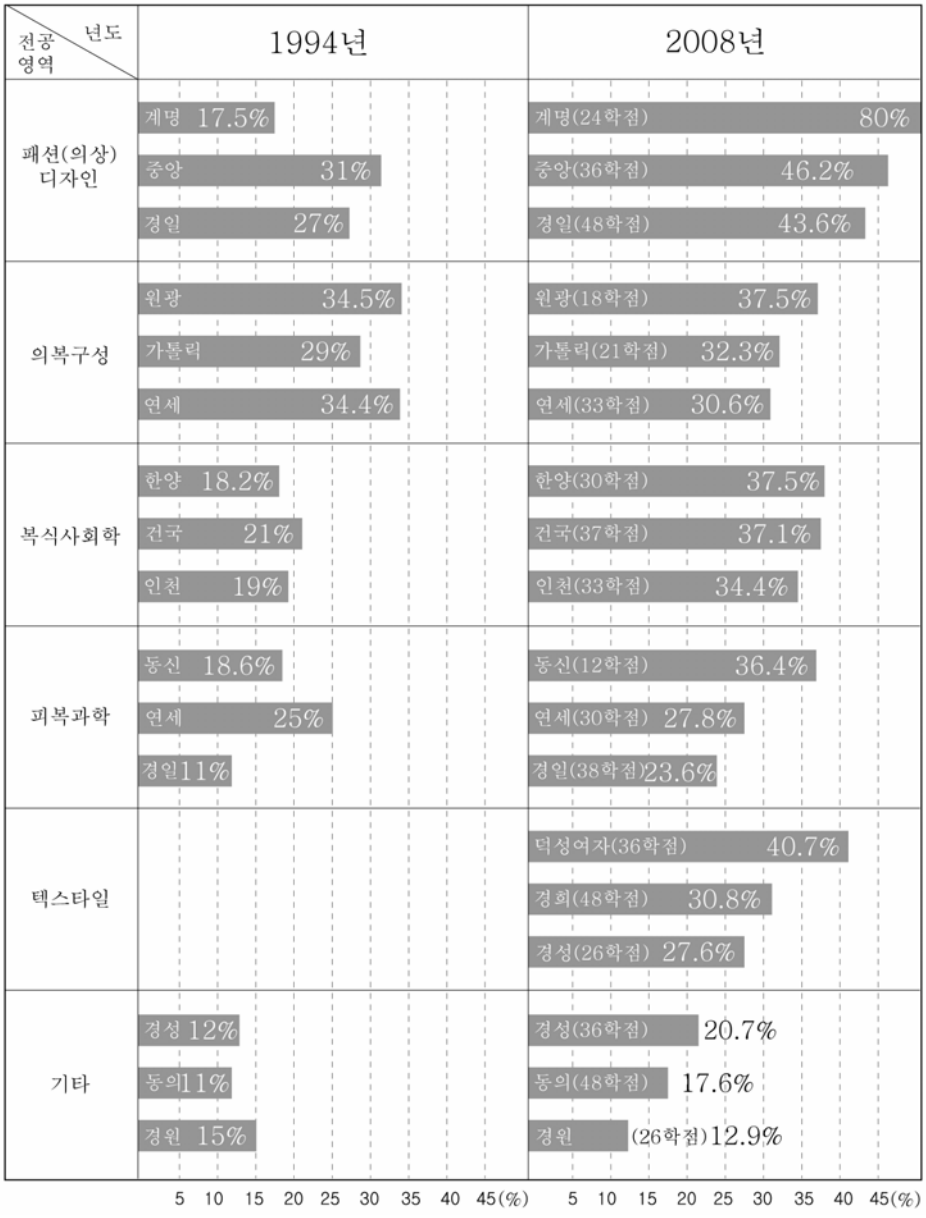
<표 7> 2008년 각 대학의 전공영역별 교과목 학점 비율(단위%)

전공영역 / 대학교명	패션(의상)디자인		의복구성		복식사회학		피복과학		텍스타일		기타		계
	1994	2008	1994	2008	1994	2008	1994	2008	1994	2008	1994	2008	
서울	15	25	29	28.6	13	21.4	33	21.4		0	10	3.6	100
연세	22	8.3	28	**30.6**	22	30.6	25	27.8		2.8	23	0	
한양	21.2	20.8	**33.3**	20.8	18.2	41.7	18.2	16.7		0	9.1	0	
건국	21	**34.3**	22	17.1	21	37.1	24	5.7		5.7	12	0	
경희	**30**	**38.5**	20	7.7	18	7.7	13	11.5		30.8	19	3.8	
중앙	**31**	**46.2**	25	7.7	26	19.2	13	11.5		11.5	29	3.8	
한성	15	**33.3**	22	27.3	17	24.2	37	0		6.1	9	9.1	
숙명여자	9	**34.1**	25	12.2	16	**31.7**	**41**	9.8		12.2	9	0	
서울여자	**32**	**34.2**	20	29	22	21.1	17	2.6		2.6	9	0	
동덕여자	28	**42**	**35**	19.4	14	29	10	3.2		6.5	13	0	
덕성여자	41	25.9	16	14.8	21.3	3.7	9.4	7.4		40.7	12	7.4	
경원	24	**35.5**	26	19.4	15	3.2	20	6.5		22.6	15	12.9	
가톨릭	14	25.8	29	**32.3**	17	22.6	26	9.7		0	14	9.7	
인천	27	18.8	24	25	19	**34.4**	16	12.5		3.1	14	6.3	
인하	18	29.2	**32**	18.8	21	16.7	20	16.7		10.4	9	8.3	
대전	17.1	**30**	**34.2**	20	14.3	30	23	6.7		6.7	11.4	6.7	
배재	17	19.1	26.5	21.3	17	29.8	26.5	19.1		4.3	13	6.4	
한남	34	26.8	**34**	17	16	19.5	10	9.8		14.6	6	2.4	
청주	**37.5**	**43.3**	18	20	9	16.7	18	6.7		10	17.5	3.3	
대구	23	**36.4**	28	15.2	18	12.1	21	6.1		21.2	10	9.1	
계명	17.5	**80**	29.5	10	20.5	0	23.5	10		0	9	0	
경일	27	**43.6**	27	3.6	25	9.1	11	23.6		12.7	10	7.3	
영남	9	28.2	32	20.5	20	17.9	**39**	17.9		10.3	0	5.1	
경북	15	17.2	20	27.6	18.5	20.7	28	17.2		6.9	18.5	10.3	
창원	16	13.3	25	23.3	16	23.3	**37**	30		3.3	6	6.7	
전남	13.3	**33.3**	**34.4**	27.8	13.3	19.4	27	8.3		11.1	2	0	
동신	22.6	27.3	**35.3**	27.3	13.7	9.1	18.6	**36.4**		0	9.8	0	
원광	16	25	**34.5**	**37.5**	16	18.8	19	6.3		12.5	14.5	0	
부산	12	**31.8**	25	18.2	18	27.3	**40**	13.6		9.1	5	0	
동의	21	23.5	26	17.6	13	23.5	29	14.7		2.9	11	17.6	
경성	13	27.6	20	10.3	15	13.8	40	0		27.6	12	20.7	
동아	18.2	29.4	21.2	23.5	15.2	26.5	**38.3**	8.8		8.8	7.1	2.9	

전공영역 중 패션디자인관련분야의 비중이 전체 100%중 30%가 넘는 대학이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성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경원대학교, 대전대학교, 청주대학교, 대구대학교, 계명대학교, 경일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로 조사한 32개 대학 중 15개교이다. 이는 1994년도 동일한 조사에서 경희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남대학교, 청주대학교의 6개교로 1994년 18.7%에서 46.8%로 증가하였다. 이 중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는 패션디자인과 복식사회학 관련과목이 늘

어난 반면 피복과학 관련분야가 줄어들었다. 의복구성학이 1994년도에 30%가 넘는 대학교가 한양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대전대학교, 한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동신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8개교에서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원광대학교의1994년도 기타 항목에는 의류학, 통계학, 직물디자인, 염색공예, 복식공예, 패션디스플레이, 세미나, 논문지도 등 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텍스타일분야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텍스타일 분야를 따로 구분하였다. 패션사진, 패션저널리즘, 포트폴리오, 전시기획, 의류(패션) 산학 인턴쉽, 패션실무영어, 패션쇼 연출 및 분석, 패션광고학 및 실습, 패션정보 분석 등이 신설되었다. 3개 대학교로 줄어들었다.

<표 7> 전공영역별 학점 비율 상대비교



Ⅳ.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섬유패션관련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 4년제 대학교 패션관련전공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대학교육이 나가야할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가 검토하였다. 교과목이 전공교육 중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교육과정 수립에 있어 국내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자 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고부가가치의 패션디자인창출을 위한 주변 인프라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1994년 선행연구와 2008년 현황을 살펴보면 패션디자인분야와 의복구성분야의 교과목이 크게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디자인의 고부가가치화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최근 섬유공학과가 축소되는 대학교육에서 과학 기술적 뒷받침 없는 교육은 사상누각이 되기 싶다.

선진국의 패션 산업은 원료에서 최종제품까지의 생산단계와 유통, 마케팅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기술요소(high-tech)와 감성요소(high-sense)를 조합시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현행 시행되고 있는 학과제보다는 계명대학교나 영남대학교 같은 학부제운영과 독립된 단과대학이라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학교육에서 조직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2학년부터 최종 패션실무자가 되기 위한 세분화된 전공으로 투입되고 산학 연계에 의한 인턴쉽으로 현장감을 익히는 방법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졸업 후 최종 패션실무자를 디자이너와 머천다이저로 치중되는 현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봉제사, 패턴사, 섬유공학 분야 연구원 등 다양한 직업군을 형성 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지역별, 각 대학에서 특정 분야를 특화시키는 교육도 입학생이 현저히 줄고 있는 대학 간의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